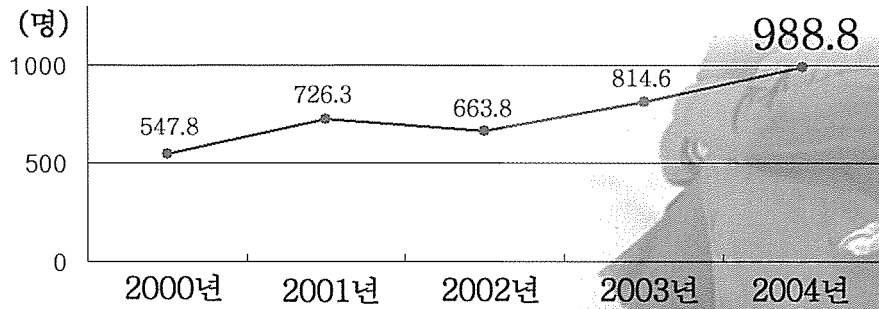


# 점차 늘어나는 여성 노숙인 차별화된 사회안전망 시급하다



**3월**의 봄을 시가하는 꽃샘추위가 옷깃을 제법 여미게 만드는 3월 13일 새벽 7시 40분. 서울역 출입구 근처에는 수십 명의 노숙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밤 12시부터 7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서울역 구내 청소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 2시부터 서울역에서 추위를 피할 그들 사이에 한 여성 노숙인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흰 점퍼 차림의 여성 노숙인은 남성 노숙인 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서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취재기사 : 김 준 호 \_ (프리랜서)  
사진협조 :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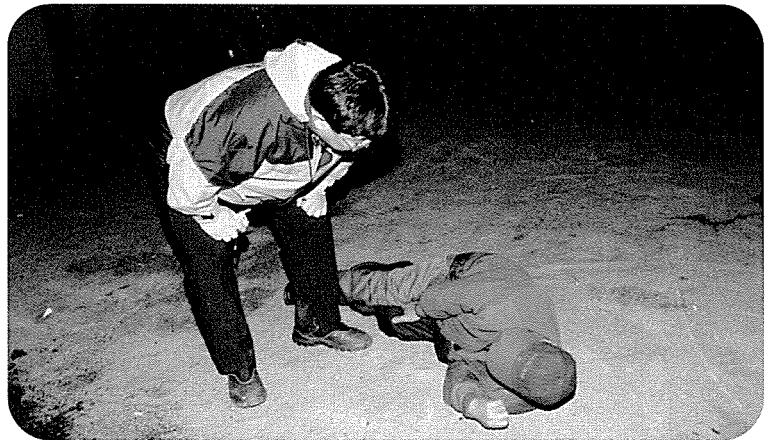


〈표1〉 지방자치단체 월별 노숙자 현황 통계(보건복지부, 2004)

### 2004년 '거리 노숙자' 최고치 나타내

#### 특히, '반노숙' 형태의 여성노숙자 급증

얼마 전 서울역 노숙자들의 잇따른 사망과 이에 따른 소동으로 노숙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월별통계를 취합해 노숙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거리 노숙자' 수는 2000년 547.8명, 2001년 726.3명, 2002년 663.8명, 2003년 814.6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오다 2004년 988.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표1 참조〉



▲ 거리에 쓰러져있는 노숙자의 모습. 잇따른 노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여성 노숙자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역, 영등포역 등에서 남성 노숙자들과 뒤섞여 생활하다가 돈이 생기면 노숙 장소 주변의 쪽방에 머물다 돈이 떨어지면 다시 노숙을 하는 '반노숙' 형태가 많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다.

여성 노숙자들이 증가한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2003~2004 노숙자 현황' 자료에도 잘 나타난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4년 6월 현재 전국 각지의 노숙자 쉼터에서 집계된 여성 노숙자 수는 모두 233명. 이는 2003년 178명에 비해 31%나 증가한 수치이다.

사실 이러한 숫자는 병산의 일각일 수 밖에 없다. 전국의 노숙자나 여성 노숙자 수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1만여 명으로 추산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쪽방 등지에서 생활하며 수시로 노숙을 하는 경우까지 합치면 수만 명에 이른다.

### 특수 상황이 존재하는 여성노숙자 자기방어 못해 항시적으로 성폭력 위험 노출

여성 노숙인들은 일반 노숙인 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지닌다.

그만큼 여성 노숙인에게는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는 것. 여성 노숙인들은 항시적으로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또 여성 노숙인들의 많은 분들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방어를 하지 못해 더 부각되기도 한다.

13일 기자와 서울역에서 만난 60대 할머니 2명은 서울역 청소 시간을 기다리면서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 한 할머니는 곤색 가방을 둘러메고 한쪽 손에는 보자기로 뽕뽕 묶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기자의 취재 요청에 가방에서 신문을 꺼내 의자에 띄우고 한 마디를 던진다. "내게 취재할 것이 뭐 있겠수, 이 근처에는 매일 밤에 나오는 젊은 여성 노숙인도 있어요. 그쪽에 가서 취재를 해요."

할머니 두 분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했다. 이곳에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자신이 맡을 안 해도 본인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것 아니냐는 듯한 태도였다.

근처에서 만난 공익근무요원은 '그 할머니는 매일 서울역으로 나오는 노숙자로 아침이 되면 어딘가로 갔다가 밤에 다시 나타나곤 한다'고 귀띔해주었다.

또 다른 여성 노숙인은 남성 노숙인들 틈에 있었다.

마치 남성 노숙인들이 여성 노숙인을 보호하는 모양새를 띄었는데 그들은 간혹 웃으면서 대화를 나

누고 있었다. 서울역 공간분실에 따르면 "남성 노숙자들이 노가다를 해 번 돈으로 여자들에게 밥과 술을 사 주면 여자들은 잠을 자줘야 한다"며 "여성 노숙자들 중에는 쉼터에 들어갔다가도 술을 못 먹게 하고 잘 시간에 자야하는 통제된 생활을 못 이기고 또다시 나온다"고 했다.

### 여성노숙자 불안한 가정환경으로 거리로 내몰려 증가추세에도 남성에 비해 여성노숙자 시설 매우 부족

여성 노숙인들은 실업대란으로 가족 해체현상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가정폭력과 노인학대 등 불안한 가정 환경에 시달려 거리로 내몰린 경우가 많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는 다르게 자신의 생존을 위한 본능도 강하고 여성으로서의 수치심 등으로 인해 막바지까지 다르지 않으면 노숙자로 나서진 않는다. 술집, 다방, 식당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최후까지 경제생활을 영위하다가 막바지에 자활의지가 거의 없는 경우에만 노숙자로 전락한다.

경제적인 빈곤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가정불화나 가정폭력도 여성의 자활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결국 노숙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여성 노숙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그 심각성도 높지만 정작 여성 노숙인들을 위한 시설은 매우 부족한 편이다. 노숙자를 위한 쉼터, 희망의 집, 자유의 집 등이 모두 남성 노숙인을 위한 시설일뿐 여성을 위한 시설이 거의 전무한 것이다.

국내 첫 여성 노숙자 쉼터인 '내일의 집'은 한국 여성 목사 1세대로 통하는 정태효 목사가 1998년 문을 열었다. 이미 210여명의 여성 노숙인들을 정상적 사회인으로 자립시켰고 지금도 방 4개에 여성 노숙인과 그 자녀 3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지난 4월 문을 연 '열린여성센터'는 여성 노숙인들을 위해 최대한 문턱을 낮췄다. 이곳에서는 여성 노숙인들을 위해 서대문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해 심리치료와 정신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주에 한 번 정신과 의사가 방문해 심리상담과 투약을 한다.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화엄동산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기본적인 숙식해결이 어려운 여성에게 개방된 쉼터다. 일반 가정집 형태의 주택에 마련된 30명 정원의 쉼터여서 스스로 생활 할 수 있는 여성 노숙인들만 입소할 수 있다.

**여성노숙자에 대한 차별 지원정책 필요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 센터 배치 시급**

이처럼 여성 노숙인을 위한 시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여성 노숙인 대책 마련은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다. 노숙자 다시서기지원센터 김해수 과장은 "여성 노숙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도 차등화 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남성에 비해 소수이다보니 지원 순위에서 밀린다"고 전했다.

■ 노숙인 복지서비스, 서울시는 지금...  
서울시는 늘어나는 노숙자들을 위해 4월 1일부터 용산구 갈월동에 400평 규모의 시설을 운영, 잠자리와 목욕, 세탁 시설을 무료로 제공한다. 그리고 '상담보호센터 이용유도반'을 운영, 지난 3월 2일부터 매일 밤 서울역, 영등포역, 시청역 주변 등에서 상담보호센터 숙박을 권유하는 상담원들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상담보호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노숙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 일거리를 제공해 자활을 돕는다. 그리고 서울시가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병원과 연계해 노숙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 한다.

IMF와 최근의 실업대란은 집이 없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노숙인들을 양산하고 있고 여성도 예외가 아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대책 마련은 정부의 정책과 국민의 관심이 근본이다. 특히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전문인력들이 지원센터 등에 더욱 배치돼 유형별 노숙인들에 대한 차별화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역에서 만난 한 여성 노숙인의 경계가 가득한 눈빛은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웅변하는 듯 했다. 

INTERVIEW  
"서울시에 여성 노숙인 전용시설 6곳 있어"

최근 서울역에는 노숙인의 규모가 부쩍 줄었다. 왜일까? 그 주변에 노숙인다시서기 지원센터가 개소해 1일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사회 대책망의 증가는 바로 그 효과를 나타내는 반증이었다. 직원들의 전원이 사회복지사인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의 김해수 과장을 만났다.

- 서울역 주변의 노숙자가 조금 줄은 듯 한데, 최근 지원센터가 개소해 1일보호 운영으로 하루에 90명 가량의 노숙자들을 맡고 있다. 1일보호는 노숙자의 기초 편의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노숙자들에게 인락함을 제공하는 일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  
노숙자들에게 기초 편의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노숙자들의 고민 상담, 즉 부채, 신용회복, 취업, 주민등록번호 상담 등을 통해 노숙자들의 재할 의지를 돕는 일을 한다.

- 남성 노숙자도 마찬가지로지만 여성 노숙자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여성 노숙인 시설은 서울시의 경우 6개소가 있다. 남성 노숙인 시설 보다 크게 부족한 편인데 가족쉼터, 모자 쉼터 등 여성에 맞게 차별화될 필요성이 있다. 국가적 서비스 마인드가 꼭 필요하다.

- 상담직원들의 전문성에 대해 이야기 해 달라.  
상담직원이 전부 사회복지사이다. 전문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해주고 있어서 노숙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가이드를 진행하고 있다.